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30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2021. 10. 24. (나해) 제2291호

제30주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바울로본당 주임 | 허광철 요셉 신부

하느님께서 사람을 참으로 '희한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희한하게' 알아챌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본당에서는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 내심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이 되었지만 코로나 이전만큼 오셔서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성당에 다니며 행복해하는 친구 부부 때문에, 항상 천사 같은 미소로 대해주는 이웃 때문에, 어릴 적 성당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때문에 등등. 사연은 다양하나 '희한하게' 하느님을 '이미' 알아본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들 교리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세례를 받으셔서 놀라운 '하느님의 일'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더러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절대절명의 선교 사명을 내리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도대체 의심하며 아직 제대로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무엇을 보시고 명을 내리시는 것일까? 부활 이후의 복음들은 의심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느님의 힘'과 '성령의 도움'이 주님의 이 사명을 완성시킬 것임을 알아채게 합니다.

바로 사도는 서간들에서 인간의 영과 성령을 '프네우마(Pneuma)'라는 같은 단어로 혼용하여 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간의 영'이 바로 '성령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인 이들의 영은 '희한하게' '성령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선교 내지 복음화의 사명은 자신의 영을 성령께 내맡겨 드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하느님의 일을 알아채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봉사합니다.

선교 주일인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인지 불편하게 하는 존재인지 먼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은 내가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이웃을 존중하는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일에 '내 영'이 봉사하도록 겸손되이 청해봅니다. **기도문**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4,2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힘을 체험하고,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삶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을 깨달으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복음화의 역사는, 주님께서 모든 이를 불러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만나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요한 15,12-17 참조) 주님과 나누는 우정 안에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시며, 더러운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당신과 동일시하며, 참행복을 알려 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권위 있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1요한 4,19 참조)는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릴 때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선교 열정도 이성적 추론이나 이해타산의 결과로는 결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선교에 몸담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의 반영입니다.”(교황청 전교기구에 보내는 메시지, 2020.5.21.)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이미 많은 이들이 체험한 고통, 고독, 가난, 불의를 부각시키고 증폭시켰습니다. 보건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명목으로 무관심과 냉담을 포장하고 정당화하려는 유혹이 생길 때, 필수적인 거리 두기 조치를 만남과 돌봄과 증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비의 사명**이 긴급히 요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사도 4,20), 곧 우리가 체험한 자비는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자 신뢰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화를 쏟아야 할 소속감과 연대의 공동체”(『모든 형제들』, 36항)를 세우고자 하는 공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기를, 형제애를 지니기를,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라는 올해 전교 주일의 주제는 우리 마음에 지닌 것을 우리가 저마다 ‘책임’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요청입니다. 이 사명은 언제나 교회의 특징이며, “교회는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4항)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소명이 과거의 일이거나 이전 시대의 낭만적인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시대에 우리 삶의 반경을 넓히고, 우리의 “관심권”(『모든 형제들』, 97항)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는 다른 이들이 비록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능력을 날마다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우리가 모두 참된 선교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이유

금호본당 | 정윤희 엘리사벳 앤 시튼

마흔네 살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툭’하고 끊어지고 나서였습니다. 가족을 버려둔 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의 강론 중에 어떤 미국 교포가 세탁소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 중에도 성경 한 권을 필사했다는 말씀을 듣고 거짓말같이 느껴졌습니다. ‘습자지처럼 얇은 종이로 이토록 두꺼운 성경을 평생 다 읽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쓰다니...’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 9개월쯤 되던 시기, 마침내 노트를 준비하고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재밌고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떠돌이 생활 중이라 가방 속에 성경 책과 필사 도구를 담아 등짐 지듯 메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펼치고 썼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식당 구석자리에서, 편의점 간이 의자에서, 공원 벤치에서, 강변 다리 밑에서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필사가 일상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도 필사를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과 함께하고 방을 구해 생활하는 중에 필사를 마쳤습니다. 1999년 9월 29일에 시작된 필사는 2001년 12월 2일에 완서를 했고 부산교구 정명조 주교님으로부터 성경 필사 인증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사를 할 때와 필사를 마친 후 할 일을 다 한 듯 필사를 하지 않을 때와는 삶의 질이 확연히 다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게으름과 세속적인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처럼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3월 언저리에 필사를 다시 시작했고 처음 할 때만큼 열정적이지는 못했지만 요한 묵시록이 끝나면 바로 다음 창세기를 시작하며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바오로팔 통신 성경 공부도 6년간 했습니다. 문득 뒤돌아보니 필사를 하는 동안 저의 궁핍하고 어지러운 삶 또한 정리가 되면서 바르게 질서가 잡혀가고 윤택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구약을, 직장에서는 점심 식사 후 직원들이 잡담과 휴식을 하는 동안 저는 신약을 필사했습니다.

한 번 쓰는 것은 세 번 읽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열여덟 번째 읽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햇살 드는 마당에 앉아 재잘거리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청량한 풍경소리를 들으며 필사 중에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별, 저의 성채입니다.”(시편 18,2-3) **필문**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권(權) 데레사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딸이요, 1801년의 신유박해 순교자 권상문 세바스티아노의 동생이다. 1784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데레사는 6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791년의 신해박해로 아버지까지 잃어야만 하였다.

데레사는 어렸을 때부터 덕행과 신심이 남달랐다. 또 성장한 뒤로는 온화함과 애덕으로 형제간에 평온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 17세 때 일어난 신유박해로 온 집안이 풍파를 입게 되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게 된 데레사는 조카 하나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생활하면서 동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동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계속되는 친척들의 설득에 동정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였으며, 20세 때 조숙 베드로와 혼인을 하였다. 당시 베드로는 냉담자였다.

혼인하는 날 밤 권 데레사는 ‘동정 부부로 살자고 부탁하는 글’을 써서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마음이 변하여 아내의 원의를 들어주었고, 잠깐 사이에 신앙심이 되살아나서 판사람이 되었다. 이후 데레사 부부는 남매처럼 지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서 생활하였다. 그들의 신심은 날로 깊어졌고, 기도와 복음 전파와 고신극기 행위는 그들 부부의 일상이 되었다. 비록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남을 위한 애공에 열심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데레사 부부는 성 정하상 바오로를 도와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정 바오로가 북경에 갔을 때,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천주교 신자임을 자백하고, 남편을 따라 옥으로 끌려갔다. 데레사는 관장이 배교를 권유하자 이렇게 답하였다.

“천주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 부모를 배반하는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은 다시 몇 차례에 걸쳐 문초와 형벌을 가하였지만, 데레사 부부의 신앙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데레사 부부는 2년 이상을 옥에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는데 1819년 8월 10일(음력 6월 20일) 이후로, 당시 데레사의 나이는 36세였다.

교우들은 그들이 순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교우들은 데레사의 머리뼈를 바구니에 담아 성 남이관 세바스티아노의 집에 두었는데, ‘바구니를 열면 향기가 진동하였다’고 여러 교우들이 증언하였다.



권천레 데레사
(1783 ~ 1819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모집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으로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2년의 과정을 마친 후 정식으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접수 : 2021. 11. 1(월) ~ 12(금)

인터넷 접수 : <http://cu.ac.kr>

문의 : 053)660-5111

DCU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 인문학 석사 학위 과정

모집 : 2021. 11. 1(월) ~ 12(금)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 무관)

강의 : 월, 목요일 야간 (남산동 유스티노캠퍼스)

혜택 : 모든 학생에게 50% 장학금 지급

문의 : 053)660-5252~4 / 010-6563-0409

<http://spgr.cu.ac.kr>

30.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⑩

인간 생명의 가치는 위대하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무고한 태아에게서 그 생명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육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목적이요 결코 다른 인간의 '소유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생명의 마지막 단계까지 포함하는 모든 단계에서 인간 생명을 보호합니다. 또한 저는 전반적인 자녀 교육이 부모의 "가장 중대한 의무"이며 또한 "제1차적 권리"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학교는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으로 교회를 건설하고, 이로써 하느님께서 주신 성소를 받아들입니다. (사랑의 기쁨, 83~85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야외 소풍, 캠핑 시 일회용품, 플라스틱, 비닐용품 사용 줄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41호 정답

1. 선조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음 2. 이스라엘, 하느님 3. 자애 - 8번, 성실 - 7번 4. 용서, 아픔, 목숨, 자애, 자비

코로나19로 힘들긴 하지만

박성규 엘리지도



우리의 임무에 충실히...

미사 안내

| | | | |
|-----------------|-----------------------|-----------------|-------------------------|
|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10월 25일(월) 10:30 범어성당 | 한국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10월 26일(화) 19:30 다사성당 |
|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10월 25일(월) 11:00 계산성당 | | 10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
|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 10월 25일(월) 11:00 도량성당 | | 10월 27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

성소 | 피정

한국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교육 | 모집 | 기타

2022학년도 무학교 신입생 모집

존중과 감사로 행복을 배우는 무학교
대상: 경북지역 중3학년 졸업예정자
고입설명회: 11.20(토)
기숙사 운영(원거리 우선)
문의: 854-8015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월)~12(금) 17:00
입학전형: 12.6(월) 14:00(석사과정)
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
문화학 / 문의: (02)2258-7076, 7107

가톨릭상지대 2022년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기간: 11.8(월)~11.22(월) 수시 2차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37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1.2(일)~1.29(토) 4주
설명회: 11.06(토) 14:00
대상: 초등 2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주일 성령묵상회 (주일 3회 과정)

일시: 11.14(일), 11.21(일), 11.28(일)
9:30~18: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고령)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부부 둘만의 여행 대구ME주말(대면)

383차: 10.29(금)~31(일)
384차: 11.26(금)~28(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h.co.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09:00~17:30)



미혼모 돕기 2022년 흥창익 비오 신부님의 묵상사진 북캘린더 “찬미받으소서” 출시 예약판매

교구 문화홍보국에서 매년 발간하는 탁상용 북달력이 2022년에는 흥창익 비오 신부님(효자본당 주임)의 묵상사진과 함께 합니다. 이번 캘린더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미혼모 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예약기간: 10.25(월) ~ 11.12(금)

예약금액: ~~10,000원~~ 8,000원(20% 할인)

주문 및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달병원 4층

24시간 무료결석
비엔 비뇨의학과
피부과
비엔 비뇨의학과
대표원장 | 전문의 이윤형(요섭)
삼정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신상조(스테파노) 신부
 1985년 10월 26일

행사 | 모임

위령의 날 낙산묘원 미사

코로나 확산으로 묘지 미사는 없으며,
 본당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일시: 11.2(화), 19:30
 문의: 비산성당, 564-1004

바뇌의 성모기도회 월례미사

성모성심 특강
 일시: 10.28(목) 13:00 기도, 15:30 미사
 장소: 대안성당

제3회 성경인물(Figurine Biblique) 전시회

연극의 장면들처럼 펼쳐지는 요한복음서
 기간: 10.29(금)~11.4(목)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 갤러리 1관
 문의: 바틀로교육센터, 783-9817

제20회 사진가회 회원전

일시: 11.1(월)~11.6(토)
 장소: 성모당 안익사 일대
 문의: (010)3530-1217

교육 | 모집

대건고등학교 온라인 입학설명회

10월: 21일(목), 28일(목)
 11월: 16일(화), 23일(화)

매주 금요일 소규모 상담 가능
 신청: 대건고 홈페이지
 문의: 235-4560

경산시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

분야: 기부은행 자원봉사자 모집
 자격: 경산지역 활동 가능하신 분
 문의: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854-1666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책으로 떠나는 신앙여정,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연필초상화, 캘리그래피,
 정리수납전문가, 문인화, 섬유공예,
 오카리나, 우쿨렐레, 장구, 성물도예,
 성가반주오르간 / 신청: 254-6115

채용 | 안내

학교법인선목학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교원): 10.25(월)~29(금)
 원서접수(직원): 10.26(화)~29(금)

자세한 사항은 선목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dgsunmok.or.kr>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위치: 달성군 논공읍
 설화명곡역 통근차량 2회 운행
 대상: 남·여 요양보호사
 문의: 616-2141 / 615-214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정혜영(스테파노)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직원 채용

내용: 주교회의 및 전교기구 직원 0명
 분야: 사무, 노무(조리·경비), 전교기구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 참조
 마감: 10.29(금) 14:00
 문의: mano@cbck.kr / pmsk@pmsk.net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사전서류접수: 10.25(월)~11.5(금)
- 제출방법: 문화홍보국 방문 또는 우편
- 주보광고접수: 11.25(목)
- 장소: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문안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터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 |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사전에 진행

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코리아알트만
 38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개원 36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실리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민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복현 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 (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의·의약박사 | 최희만(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북연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마스크(의약외품)
 KF94(일 반) 100장 30,000원
 KF94(세부리 흰색) 100장 35,000원
 KF94(세부리 갈라) 100장 40,000원
 비밀AD(흰색) 100장 10,000원
 비밀AD(칼라) 100장 12,000원
 대표 장 종 화(분도)
분도상사 010-3537-5559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사 10대이상 원비
 ▶ 유튜브 '개일남' 채널 운영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건강검진
 ·고양이특화
 ·아견양육
 대구광역시 북서구 감삼동 280-5 (이마트 감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점 010-6481-8848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